남사당과 바우덕이

김 태 원[1]

1. 남사당의 유래

남사당은 우리 서민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스스로 형성 발전시키면서 전승시켜 온 하나의 유랑예인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고 단지 집단적인 놀이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 대부분 지배층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이들 유랑예인집단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부족으로 한결같이 이들을 패속패륜의 집단으로 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사당은 기존의 사당패(寺黨牌), 걸립패(乞粒牌), 광대(廣大)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남사당은 조직과 활동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 전하는 남사당놀이는 주로 1900년대인 구한말의 패거리들의 놀이로 되어 있으나 안성남사당패의 기록은 그 이전인 조선조 명종(1545~1567)때부터이다. <임꺽정전>에서 보면 임꺽정은 전국적으로 도당을 규합하기 위해 안성을 지나다가 서운면의 청룡산에서 남사당패의 놀이를 신명나게 보고 이들과 한바탕 놀고 그중 몇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한다. 이것이 안성남사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2. 바우덕이

조선조 말에 안성남사당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대원군이 집권한 후 경복궁 중건시 전국에서 동원된 노역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놀이판이 열렸다. 이때 안성남사당이 초청되어 신명나게 놀이를 하자 역부들은 모두 넋을 잃고 빈 지게만 지고 뛰어다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우덕이의 줄타기와 소고놀이는 더욱 큰 갈채를 받았다. 이에 대신들은 궁중의 신성한 대역사에 천한 계집의 유희로 일을 그르치니 요망한 계집을 처형해야 된다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은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고 상으로 옥관자를 하사하며 부상으로 악기 등을 푸짐하게 하사하였다. 그 후 안성남사당은 바우덕이에 대한 소문과 함께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이다.

---

1) 현 안성문화원 사무국장

지금부터 130~140년 전인 1860년대에 서운면 청룡리에 불당(佛堂)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사당집이 8채가 있다고 하여 8사당(八寺黨)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 사당집에 기거하던 남사당패의 바우덕이는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소고와 춤이 세상에 뛰어나 그녀에 대한 민요가 전해 오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성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청룡 바우덕이 치마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청룡 바우덕이 줄 위에 오르니 돈 쏟아진다
안성청룡 바우덕이 바람을 날리며 떠나를 가네

이것은 그녀의 기예가 뛰어나고 훌륭해 그를 극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속요가 구전(口傳)되어 온 것이다.

남사당놀이는 근세의 대지주의 양반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서민층인 농민들에게는 큰 위안의 몫을 하면서 구한말 수구적 봉건세력과 개화파 사이에서 활발하게 꽃을 피웠으나 신문화가 밀려오던 1900년대에 이르러서 점차 쇠퇴하다가 신극(新劇)에게 관객을 빼앗기고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까지도 전국에 약 40개의 남사당패가 있었으나 점차 없어지고 다만 안성남사당패만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1910년대에는 '안성남사당 먹뱅이 개다리패'에는 이변이 일어났다. 즉 남성패거리인 남사당 꼭두쇠자리에 여자인 바우덕이를 앉히게 되었다. 이것은 점차 쇠퇴해 가는 남사당패를 새롭게 조직하여 활로를 찾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바우덕이는 이후 13년 동안 안성남사당패를 이끌어오다가 온갖 고난 속에 병들어 거리에서 죽었다. 지금 청룡리 개울가에는 바우덕이의 무덤이 남아 있다.

바우덕이의 짧고 화려했던 삶은 예인의 정상에서 농악과 사물, 풍물, 남사당에 관련된 모든 기량을 최고의 수준으로 보여주었으며, 신기에 가까웠던 당시의 예술을 원형에 근접하도록 정립한 다음 창작을 통하여 오늘 우리 현실과 정서에 맞는 놀이로 자리매김하여 안성 바우덕이 축제로 하여금 예인의 정상이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